

목 차

■ 서울시의 혁신 비전과 시정 계획

Executive Summary 1

1. 서울시의 인사 시스템 개혁 2

2. 서울시의 성장 비전 7

3. 서울시민의 삶의 질 개선 방안 12

< 토론 > 15

■ HRI 경제 지표 34

서울시의 혁신 비전과 시정 계획

□ 서울시의 인사 시스템 개혁

- **혁신 아이디어 공모** : 시장 취임 직후 우선적으로 업무 혁신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한 결과, 현재 약 2만개가 넘는 아이디어가 제안됨
- **인사 시스템 혁신** : 공무원 조직의 복지부동과 경직성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조직으로 바꾸고자 노력함
 - 이를 위하여 업적 위주의 승진 시스템 도입, 공무원 복지부동의 원인이 되었던 감사 시스템 개편 등을 추진

□ 서울시의 성장 비전

- **경제·문화 도시 표방** : 서울시가 상하이, 북경, 동경과 같은 주요 동북아 도시들과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경제력 증대와 문화 컨셉이 요구됨
- **신성장 산업 육성** : 서울시 성장 동력으로서 관광, 디자인, 컨벤션, 디지털 콘텐츠, R&D, 비즈니스 서비스 등 6대 신성장 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임
 - 특히 그동안 소홀했던 관광 산업의 육성에 주력하여, 향후 서울시에 매년 1,20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 **문화 도시 추진** : 고부가 가치 상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문화가 뒷받침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서울시를 세계적 브랜드 가치를 가진 문화 공간으로 조성해야 함

□ 서울시민의 삶의 질 개선 방안

- **환경 개선** : 문화 발전, 환경 개선 등에 노력하여, 서울시를 쾌적한 도시로 만들 것임
 - 특히 자동차 매연 규제 등을 통해 서울시의 대기오염을 줄이는 데 주력
- **사회 복지 개혁** :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영유아 보육 시설 확충, 치매 환자 치료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임
- **시민 참여 시스템 구축** :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인터넷 공간에 시정에 대한 토론의 장을 구축·운영할 계획임

서울시의 혁신 비전과 시정 계획

- 출처 : 한경미래포럼
- 일시 : 2006년 11월 15일
- 연사 : 오세훈 서울시장
- 주최 : 한국경제신문, 현대경제연구원 공동

주제 발표

1. 서울시의 인사 시스템 개혁

(오세훈 서울시장) 반갑습니다. 그리고 영광입니다. 한국 사회가 원동력이 있다고 한다면 조찬포럼에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해도 뜨기 전 시간에 모여서 여러 가지로 우리 사회의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하는 여러 포럼들의 힘으로 한국 사회가 지탱해 나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다들 궁금해 하실 텐데 젊은 사람이 시장으로 취임이 되어서 4개월이 지났는데 그 동안에 뭘 했는지, 그리고 임기 4년 동안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임하고 있고, 그 구상이 앞으로 서울의 앞날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취임 후에 제가 처음에 했던 일은 이른바 100일 창의 서울 추진 본부라고 하는 한시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100일 동안만 활동하고 해체가 됐는데 10월 9일이 100일이 되는 날이라 그날 그 동안의 활동 상황을 정리하고 해체했는데 이 기구를 만들면서 두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째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4년 동안 무엇을 할 것이냐 10년 뒤 30년 뒤를 바라보는 서울의 마스터플랜은 어떻게

그릴 것이냐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흔히들 공무원들은 무사안일이다 라는 말을 많이 하지요 이 무사안일하다고 평가하는 공무원들의 업무 스타일을 어떻게 하면 창의적으로 바꿔주느냐 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창의시정이라는 것을 표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상력을 발휘해서, 창의력을 동원해서 업무를 개선해 보자, 업무를 바꿔보자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100일 창의 서울 추진본부는 중견 간부들(팀장, 과장)이 주축이 되어서 만들었습니다. 헤드는 행정 1부시장과 삼성 테스코라는 회사의 이승환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굉장히 바쁜 분이요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이 많으신 분이요 처음에는 상당히 난감해 하셨는데 제가 억지로 떼를 써서 모셔서 여름을 거의 반납하시고 서울시로 매일 출근하셨습니다. 이 두 분이 의논을 하시면서 이 조직을 이끄셨고, 서울시에서 일을 좀 잘 한다고 하는 중견간부들 수 십 명을 모아서 플랜을 짰는데 일단은 어떻게 하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어서 열정과 창의력을 가지고 시민 고객께 이른바 행복을 드리고 편안함을 드리고 즐거움을 드릴 수 있겠느냐 그 방법은 어디에 있느냐, 제가 요구했던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다른 것 없다 각자 자신이 맡은 업무에는 자신이 가장 정통하니까 자신이 맞고 있는 해당분야에서 무엇을 바꿔야 시민 고객께 행복을 드릴 수 있는지, 또 그런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아이디어를 내 보라.

■ 혁신 아이디어의 모집

처음에 그 작업은 조직 내에서 아이디어를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이 약 48,000명이 된다고 하는데 그 중 각 25개 자치구를 빼면 약 14,000명 정도가 됩니다. 본청에 4천명 가까이 되고 출현기관 투자기관 등 10개 되는 산하단체까지 하면 14000명 정도가 됩니다. 일단 14000명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업무를 개선하는 작업을 시작하면 “저게 또 혁신을 하는 거구나, 개혁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것 같아서 일체 그런 표현은

쓰지 않았습니다. 상상력을 발휘해서 아이디어를 얻는데 뭘 주제로 얻느냐, 청계천과 아이디어의 만남이라는 아이디어, 한강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친숙한 공간, 그리고 우리나라는 찾는 바이어나 관광객들에게 꼭 찾아갈 만한 공간을 만들 수 있는지 아이디어를 내 보십시오 그런 식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차츰차츰 업무개선 아이디어로 갔는데 100일이 될 때까지 약 2만개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14000명이 2만개의 아이디어를 냈으니깐 그런 대로 동참하는 분위기는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 쓸 만한 아이디어를 골라내서 프로젝트화 한 것이 이른바 시정 운영 4개년 계획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시청 내에 뭘가 자기 업무를 개선하고자 하는 분위기라고 할까 그런 게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저는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자평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아이디어들입니다. 저희 서울시 산하에 서울신용보증재단이라고 하는 산하 단체가 있습니다. 자영업하시는 분들이나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창업자금, 중소벤처업하시는 분들한테 운전자금, 저리로 용자하는 금융기관입니다. 지금까지는 용자금 신청을 하게 되면 구비 서류가 10종류 정도 필요했는데 이제부터는 다섯 종류만 요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심사하는 데 한 달 정도가 필요했는데 지금부터는 1주일 만에 가부간의 통보를 하겠습니다. 이런 류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서울시의 민원 시스템이 내년부터는 완전히 바뀌는데 지금까지는 보통 여느 기업처럼 똑같이 전화를 걸면 산하단체마다 처리하는 방식이 다 다르고 전화를 하면 1분 정도 지날 때까지 기계음만 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1분 정도 지나서 짜증이 나서 끊어버리는 그런 옛날 시스템이었는데 이제부터는 15초 내에 육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처음들은 육성으로부터 민원 해결이 7-80% 정도는 되도록 만족하고 전화를 끊도록 매뉴얼을 만들어 보도록 해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나 거기에서 해결이 안 되는 전문적인 토론이 필요한, 논의가 필요한 민원의 경우에는 바로 담당자에게 연결이 되어 예약해서 직접 찾아가서 미리 약속한 시간을 할애 받아서 민원을 처리하는 민원 예약 시스템이 만들

어지고 민원 플라자가 만들어져서 따로 민원을 처리하는 공간이 생기는, 지금까지는 민원인들이 찾아가면 괜히 바쁜 공무원 붙잡고 책상 옆에 보조 의자 놓고서 바쁜 사람 방해하는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당당히 민원인을 대하는 그 시간이 하나의 그 공무원의 업무가 되는 것입니다. 민원 콜 제도, 민원 예약제도, 민원 플라자 해서 민원에 관한 시스템이 7-8개 준비되면서 내년 2월부터 초벌로 바뀌고 7월부터는 완전히 바뀝니다. 이런 것들이 이른바 창의시정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 인사 시스템 혁신

이것만해서는 업무 분위기가 바뀐다고 볼 수 없겠지요. 일단 공무원들을 움직이는 것은 일을 잘한다고 해서 연봉을 올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사 시스템과 감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손을 봤습니다. 50일 되는 시점쯤에 초벌로 신인사, 신감사 시스템을 발표했고 100일 될 때 완비된 인사 감사 시스템을 정비했습니다. 요지는 아까 말씀드린 아이디어를 100일 동안만 할 게 아니고 꾸준히 받아야 하는데 이걸 어떤 인센티브로 끌어갈 것인가,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실행한 개인과 조직에게 이른바 업적 포인트가 부여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게 개인 것이든 팀이나 과의 아이디어이든 일단 아이디어를 낸 사람과 낸 팀, 실행한 사람과 실행한 팀에 대해서는 3개월 단위로 평가를 해서 업적 포인트가 부여가 되고 그것이 마일리지도 쌓이게 됩니다. 3개월 단위로 각 시국별로 하고 전체 모아서 전체 차원에서 모아서 상을 주는 데 이것이 창의인 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연말에 대상을 주고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대충 계산해 보면 1년에 2-300명 정도가 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직에서 한두 명 정도가 이런 상을 받으면 새로운 사람이 푸닥거리한다고 하겠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서 2009년도가 되면 이 포인트가 쌓인 것을 토대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아마 다들 기업을 하시고 그 방면

에 대해서 전문가들이니까 이 조직이 어떤 자극과 활력을 넣을 지는 미루어 짐작이 가실 줄 압니다. 그렇게 해서 이른바 그 동안의 연공서열식의 인사에서 업적 포인트를 반영하는 인사 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예를 들면 그 동안에 9급으로 들어와서 5년이 되려면 서울시에서 평균 29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신인사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15년짜리 페스트 트랙이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물론 다 그 트랙에 탈 수는 없겠지요. 아주 성실하고 창의력이 풍부하고 실행력이 있는 그런 공무원들만이 이 페스트트랙에 올라 탈 수 있는데 그나마 트랙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조직에 많은 차이가 있다고 봐서 만들었습니다.

감사 시스템 역시 일조를 하는 건데 그 동안 공무원들이 움츠러들고 무사안일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감사 시스템에 있습니다. 창의적인 일을 새롭게 시도한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지요. 그 과정에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다가 실수가 나면 그게 고스란히 개인의 책임이 되어서 인사 카드에 남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계속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일을 시도하기보다는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차라리 나은 시스템이었는데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사전 감사 시스템 미리미리 심사 평가를 해서 반영하는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창의력을 발휘해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장려를 받는, 그래서 한두 번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마는 무난한 성공보다는 위대한 실패를 오히려 더 높이 평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큰 골격으로 인사와 감사 시스템을 손을 보고 그리고 업무를 스스로의 아이디어를 내서 바꾸어 나가는 분위기로 나가도록 노력을 해 봤습니다. 이것이 일하는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저의 시도였고 자평을 하지만 시동을 걸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소중한 불씨는 어떻게 잘 살려 나가느냐 라는 것이 성공의 관건인데 어제 두 번째 회의를 했습니다. 창의 실행 보고회라고 해서 매달 한번씩 이달에는 어떤 아이디어가 새로 나왔고 지난 달 나왔던 아이디어는 어떻게 실행이 되고 있는지 매달 보고를 받으면서 챙기고 있습니다.

2. 서울시의 성장 비전

이것이 공무원 사회의 변화를 모색하는 한 가지 축이었고, 또 한 가지 축은 4년 동안과 10년 20년의 앞을 내다보는 서울시의 비전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가능케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입니다. 100일째 되는 날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이른바 시장이 되어서 경제 문화 도시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캐치프레이즈가 맑고 매력적인 세계도시 서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21세기에 승부를 하려면, 특히 경쟁 도시들, 상하이 북경 동경과 같은 서울의 경쟁 도시들과 다투어서 앞서 나가려면 문화를 컨셉으로 승부를 할 수 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른바 경제 문화 도시를 표방했습니다. 다섯 개 핵심 프로젝트, 15개 사업, 471개의 단위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실행을 완료하거나 시동을 걸거나 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다섯 개는 크게 대변해서 경제 도시, 문화도시, 환경도시, 복지 도시, 시민도시 다섯 가지로 구분했고 대표적인 걸 설명드리면 경제 도시는 신성장 산업, 서울의 10년 뒤를 바라보는 신성장 산업을 6개 선정했습니다. 첫째는 관광, 두 번째는 디자인 산업, 세 번째는 컨벤션 산업 네 번째가 디지털 콘텐츠, 다섯 번째는 R&D, 여섯 번째는 비즈니스 서비스업종들입니다. 비즈니스 서비스 업종은 잘 아시다시피 금융 보험 유통 교육 의료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비즈니스 서비스업종입니다.

■ 신성장 사업 비전

하나하나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관광은 그 동안 서울시에서 한 번도 신경을 써 본 적이 없는 사업 영역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피터 드러커를 비롯해서 세계적인 학자들이, 또 세계적으로 미래의 산업을 예측하는 분들이 이제 세계 도시들은 관광으로 먹고 살 것이다라고 이미 오래 전부터 예언을 해 왔는데 관광에 대한 투자는 거의 전무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사에서 관광객 1200만원의 시대를 열겠다라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무모하고 공격적인 수치입니다. 작년에 서울을 찾은 관광객이 480만, 국내에 들어온 관광객이 602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배 반 정도의 목표 수치를 설정한 셈입니다. 내부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수치다라고 해서 반대하는 의견도 많았지만 우겨서 목표를 높이 설정하고 모든 행정 역량을 여기에 집중하자 하는 의미에서 조금 무리한 목표 수치를 설정했습니다.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믿는 바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북경 올림픽이 있고 2010년도에 상해 엑스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말까지 목표를 그렇게 정하고 타겟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일본 관광객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쯤 되면 중국 관광객이 거의 비등하거나 역전하지 않을까 보는데 일단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로부터 여러분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신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아이티 청계천 프로젝트 남산 명소화 프로젝트 명동 인사동 개조 프로젝트 도심 부활 프로젝트 그런 것들이 다 하부 개념으로 나오는 것들입니다.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이 한강에서 만도 3박4일 정도 머물 가치를 느끼는 한강을 만들겠다 지금까지 치수 위주의 한강에서 이수 친수 개념으로 바꾸어서 한강을 좀 더 접근성이 높고 생태적으로 가볼 가치가 있고 거기에 문화와 엔터테인먼트와 레저의 개념이 포함된 한강으로 만들어보겠다 라고 하는, 관심 있게 보셨으면 이미 신문지상을 통해서 몇 가지 그림 나간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한강의 33쪽지의 변화가 앞으로 4년 동안 생깁니다. 특히 내년이 중요합니다. 2008년 올림픽 때 북경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서울에 들르게 하려면 내년에 한강변에서 여러 가지 세계적인 이목을 끄는 이벤트와 행사들이 문화적으로 또 엔터테인먼트가 가미된 행사들이 많이 열리게 됩니다. CNN이 카메라를 들고 쫓아오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기발한 이벤트를 많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자칫 잘못하면 오세훈 시장이 엔터테인먼트 시장이다라는 소리를 들을 것을 각오를 하고 대한민국 오락부장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한번 가 보자 그래서 저지를 일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걸 비롯해서 청계천이 이제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많이 방문하시지만 청계천에 가시면 우리의 고품격 문화를 느낄 수 있고 최첨단을 걷는 IT를 비롯한 여러 가지 첨단, 미디어, 통신의 진수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컨셉들이 청계천에 쪽쪽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을 찾는 바이어나 관광객들이 서울은 유구한 역사와 고품격 문화와 최첨단 산업이 어우러진 도

시다 라는 걸 피부로 실감하고 갈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남산과 청계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홈페이지에 올라 있으니 이 자리에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디자인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다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동대문 운동장 두 개가 없어집니다. 축구장 야구장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디자인 콤플렉스가 들어갑니다. 디자인 월드 플라자라고 가칭 이름을 지었는데 두 개의 공간을 지워내면 약 25000평 정도가 되는데 녹지 공원화 시켜서 밀리오레, 두타를 비롯한 그곳에 이미 형성된 섬유 봉제 패션을 테마로 한 업종들이 이른바 고품격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 공간을 고급화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디자인 산업의 메카로 만들어 보겠다 라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하나하나 추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가장 큰 난감은 서울 운동장에 품물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노점상들입니다. 전임시장께서 청계천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청계천 변의 노점상들을 그곳에 품물시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세계적인 품물시장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그곳에 집단 수용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쉽게 승복할 것 같지 않습니다. 마땅한 대안도 없고, 이 일의 성공의 관건은 노점상들을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서 내보내느냐인데 또 딜레마가 그분들께 그와 유사한 반대 급부를 주게 되면 이게 거의 권리로 인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에 어긋나서 그분들께 어떻게 적당한 인센티브를 주고 그곳을 나오도록 하되 그것이 항구적인 권리가 되지 않게 하느냐 하는 게 힘든 문제인데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디자인의 메카가 되는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컨벤션 산업은 이미 서울이 세계 9위의 컨벤션 도시입니다. 이걸 5위까지 올리겠다 해서 여러 가지 국제적인 컨벤션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를 잘 아실 테고, R&D는 잘 아시다시피 산업 입지에 관한 법률 때문에 서울 경기 지역에서 산업단지가 들어올 수 없게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에서 할 일은 차라리 잘 됐는지도 모릅니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겠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어차피 산업구성을 보면 제조업은 13%입

니다. 서비스 업종이 이미 87%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힘들게 산업단지를 유치하기보다는, 법적으로도 안 되어 있고 그 법을 4년 내에 고치기는 힘들 것입니다. 김문수지사가 대수도를 옮기겠다는 역풍 때문에 오히려 손해만 보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보다는 차라리 R&D 산업을 유치해서 상암 DNC 같은 컨셉을 마곡에도 생각하고 있는데 마곡 MRC를 제 임기 중에, 내년 부터 수용에 들어가는 데 마곡 MRC와 상암DNC를 축으로 해서 R&D산업을 육성 하겠다 라는 게 또 하나의 축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융 유통 등 이미 전 시장 시절에 금융 허브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틀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사실 지방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이미 AIG가 여의도에 금융 타운을 만든다는 컨셉을 가지고 착공을 했는데 지방 자치 단체가 그런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를 까는 게 가장 큰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고 계속해서 외국인 주재원들의 자녀들을 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한다든가 주거 환경을 만든다든가 이미 상암이나 양재동 쪽에 200 가구 수준의 외국인 전용 아파트 부지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일정 부분 진척도 되어 있고 이러한 사업들을 계속해서 외국인 투자가 가능토록 하는 여러 가지 기초적인 인프라를 까는 데 계속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비즈니스 서비스 업종들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개별적인 고려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 하면 의료 관광이라든지 그런 걸 엮어서 제도적인 틀을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개별 단위의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문화 비전

이것이 경제도시고 문화 도시는 경제 도시 설명하면서 관광설명을 드리면서 개념을 말씀드렸는데 잘 아시다시피 어차피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에서 고부가 가치를 무엇으로 만들어 낼 것이냐 고민을 하게 된다면 첫째는 R&D를 통한 최첨단 기술로 승부를 할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의 축은 문화입니다. 이른바 문화 발

신지로서서의 대접을 받아야, 존경을 받아야 같은 품질의, 같은 디자인의 물건이라도 비싸게 팔 수 있다 많이 팔 수 있다 라는 컨셉 하에 국가가 할 일 보다, 중앙 정부가 할 일 보다도 지방 자치 단체가 할 일이 더 많다. 문화의 이미지는 결국 서울의 이미지이고 서울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그래서 한 달 전쯤 100일 창의 서울 추진본부가 마무리되고 나서 맨 처음에 만난 분이 문광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관광객들이 와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고품격 문화 공간, 그리고 놀 거리, 즐길 거리, 볼거리, 편안하게 자고 쉴 수 있는 곳을 만들 테니까 중앙 정부는 법과 제도로 도와달라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말레이시아가 98년도에 관광객 배가운동을 펼쳐서 2년 만에 500만에서 1000만을 만든 성공한 우리의 벤치마킹 대상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 보니까 관광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관광업종에는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한다든지 재산세 분리 과세를 한다든지 소득세를 감면한다든지 여러 가지 재투자할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정책의 기초는 이룬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서울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전기세, 수도세 깎아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중앙 정부와 협의 중에 있고 잘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문광부 장관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로 했고 내일 모레 총리를 만나뵙기로 되어 있는데 총리를 따로 만나 뵙고 몇 가지 현안 사항을 건의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서울시가 구상하는 법적 제도적 틀이 바뀌게 되면 재정부 쪽이 마지막으로 동의해 줘야 할 부분인데 재정부도 지금 많이 마음이 돌아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쯤에는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법과 제도가 일단 현재로서는 호텔업이나 관광업이 사행산업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아무도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투자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내년에 한강변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해서 서울의 이미지를 브랜드 밸류를 좀 올려놓으면 2008년도부터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3. 서울시민의 삶의 질 개선 방안

그와 더불어서 문화가 산업과 경제의 의미도 있지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써의 이미지도 있고 그리고 문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느끼려면 문화 시민이 됐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공기처럼 물처럼 문화가 흐르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이미 시동이 걸렸습니다. 이른바 시티 갤러리 사업을 비롯해서 집에서 10분 내의 거리에 항상 예술품이 걸려 있는 공간이 있고 조각 공원이 있고 크고 작은 공연이 열리고 예를 들어 지하철 공간 같은 곳에서 공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다가 어느 순간 문득 공연을 접하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세세한 작업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환경 개선 방안

세 번째 환경 도시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선거 기간부터 주장했던 서울의 공기 질을 개선함으로써 잃어버린 수명 3년을 돌려드리겠다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틀은 매연 저감장치를 경유 차량에 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기가 나쁜 원인은 자동차가 80% 되고 그 중 경유 차량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미 제가 16대 국회에 있을 때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놓고 나왔습니다. 제가 첫 발의자인데 그때 그 법을 만들 때 샌프란시스코와 동경을 방문해서 그때 동경이 이 사업을 막 시작할 때 였습니다. PM 녹스법이라고 해서 미세 먼지와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매연 저감장치를 경유 차량에 강제로 달게 하는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 이후에 동경 같은 경우는 4마이크로그램 폐입방미터 밑으로 떨어져 있는데 우리는 6이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 임기 중에 4까지 낮추겠다는 게 정책 목표가 되겠는데 그 사업을 위해서 그때 법인이 만들어져서 시범 사업을 거쳐서 우연히도 제가 취임한 2006년 7월 1일이 그 법이 본격 시행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운명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실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제 취임 전에 이 매연 저감 장치 부착사업 DPF와 DOC라고 하는 매연 저감 장치인데 그 장착작업이 상당히 지지부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취임 후에 제가 이 사업을 한다는 게 이슈가 되어서 한번 논쟁이 불

은 적이 있었습니다. 언론에서 과장되게 오시장이 들어와서 처음 한다는 일이 매연 저감 장치 안 붙이면 부담금 물리겠다는 비판조 기사가 나와서 그게 돈을 물리겠다는 게 아니고 장치를 부착시키겠다는 것이다. 몇 년 뒤까지 말 안 듣고 안 붙이면 그때 가서 여러 가지 불편이 따를 것이다 시내에 들어오는 것이 힘들고 그 법을 어겨서 들어오면 그 차량에 대해서 부담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폭발적으로 그 신청 숫자가 늘어나서 올해의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속도로만 가면 자동차 수요 관리 정책이 도입이 되어서 거기에 시너지를 내게 되면 2010년도가 되면 정말 수명이 3년 정도 연장될 수 있는 정도의 공기 질로, 예를 들어 와이셔츠를 사흘 정도는 목깃이 더러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입을 수 있는, 남산 타워에 올라가서 인천 앞바다를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대기질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나름대로 희망 섞인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만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수돗물 사업도 있지만 그런 건 나중에 설명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 사회 복지 계획

복지 도시 프로젝트에는 여러 가지 기존에 해 오던 사업들도 업그레이드가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두 가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맞아서 저 출산에 대해서는 영유아 보육시설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질적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아이 낳는 것을 망설이는 맞벌이 부부들에게 아이를 낳도록 하는 것을 진행 중에 있고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치매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 임기 중에 여러 개의 치매 센터가 만들어져서 특히 저소득층, 제일 저소득층과 차상 등위층 계층이 치매 때문에 가정이 곤란을 겪지 않도록 전원 다 원하면 수용이 될 수 있고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도 치매에 대해서 예방하고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치매에 관한 한 거의 100%에 가까운 케어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지금 내년부터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 2010년도가 되면 어느 정도 완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 임기 중에 치매와 영유아 보육 시설에 관한 한 질적 양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만들어놓겠다 라는 게 복지 정책의 골격이 되겠습니다.

■ 시민 참여 시스템

그 외에 시민도시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여러 가지 발표된 게 있습니다. 민원 시스템을 포함해서 천만상상 오아시스라고 해서 새로운 포털 사이트가 열렸습니다. 시정에 대해서 의외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분들이 포털 사이트에 들어와서 아이디어를 남겨놓고 나가면 자체적으로 토론을 통해서 거기에서 걸러져서 처음에 직원들 사이에 아이디어를 받는 것처럼 담당 공무원과 온라인 상에서 토론을 벌여서 그 토론에서 걸러진 것들이 정책에 반영이 되는 시스템이라든가 몇 가지 준비된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충 큰 틀에서의 사업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다 하면 471개가 됩니다. 굉장히 산만하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일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시장을 위해서는 썩 잘한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제가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들은 어드바이스가, 특히 저를 아끼신 분들일수록 일 욕심부리지 말고 푹푹한 것 한 두 개만 해라 선택과 집중이다 이명박 시장님 봤지?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듣습니다. 특히 아끼신 분들일수록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제가 공무원 업무 풍토 바꾸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실제로 지금 저는 거기에 미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서울시가 전체 공무원 사회의 모범적인 업무 풍토를 자랑할 수 있느냐 2010년에 그것을 자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있느냐, 단위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할 때 마다 가장 강조하고 챙기고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저런 방법을 동원해서 끊임없이 자극하려고 노력하는 데 강의도 하고 교육 시스템도 다 바꿉니다. 내년 초에 교육 시스템이 바뀌는데 다 그런 것들을 위한 노력인데 많은 분들이 푹푹한 것 굵직한 것 두 세 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그게 하나의 방법이라는 걸 잘 알고 있지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이 들어서서 업적 위주로 일을 한다는 게 썩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지금 제 방에 들어가면 471개 사업이 벽 한 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빨간 불 파란 불 노란 불을 붙여가면서 4년 동안 그걸 챙기는 일만 남았다고 마음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토론

(이석연 변호사) 오세훈 시장님께서 그 동안 해 오신 일, 또 앞으로 하고 싶은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하나하나 듣고 보면 사실 중앙정부가 다 해야 할 일입니다. 공무원 업무 풍토 개선 이걸 중앙 공무원들 호트러질 대로 호트러졌는데 서울시가 바로잡음으로써 경종을 울리도록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 관광, 문화, 환경, 복지, 국민의 자부심을 갖는 이런 게 사실 중앙 정부가 대대로 작동을 못하는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체로 하나의 모델 케이스가 되어서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무난한 성공 위대한 실패를 내걸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대한 성공으로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안과 관련된 것, 그리고 오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지금 사실 DJ정부 때도 마찬가지로였지만 현 정부 들어와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간의 갈등이랄까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 정부 수장과 중앙 정부 수장이 당이 다르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고 서울시가 부딪히는 일이 가장 많고 현재로 여러 가지로 그런 줄 압니다. 오시장님께서도 지자체가 할 일이 많은데도 여러 가지 법과 제도가 그걸 막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를 검토하다 보면 도시개혁과 관련된 법률, 토지와 관련된 법률 등등을 보면 지방 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가 12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권한을 중앙 정부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 분권하면서도 권한은 중앙 정부에서 다 갖고 있는데 이런 걸 과감하게 이양하는 것이야말로 지방의 지역 균형 발전이 되는 것이고 또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지 수도를 어디로 옮긴다고 해서 균형 발전이 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최근에 서울시에서 문제된 것 중 하나가 미군 용산 기지를 서울시에서는 공원으로 환경 친화적인 공원으로 활용하겠다 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정부는 그걸 개발해서 아파트 단지를 건립해서 분양하겠다고 침예하게 대답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관한 법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하고 있는데 저도 그 법을 검토해 봤지만 그 법 자체가 지방 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이라는, 또 자치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협의 소지도 크다고 봅니다. 아직도 현안으로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오시장님께서서는 공원화 계획을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어떤 식으로 정부와 협의가 진행중이고 만약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당초 계획을 어떤식으로 관철시킬 것인지 아니면 정부와 적당히 타협해서 반반으로 갈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대해서 원론적인 견해만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노대통령이 탄핵에서 풀린 한 달쯤 해서 정권의 진퇴와 명운을 걸고 수도이전을 추진하겠다고. 그리고 수도이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권 퇴진운동으로 간주하겠다고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언론에 대서특필이 됐으니까. 그런 공포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수도 이전법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위헌 결정을 받아냈고 나름대로 저는 수도를 지켰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그 후에 다시 또 그 결정에 따르지 않고 연구하는 것이 수도 분할법입니다. 행정 중심 복합 도시법과 180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이 명분이 수도권 과밀화 해소, 지역 균형 발전으로 비슷하게 됐지만 최근에 들어서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는 역행되게 신도시를 서울 주변에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정부가 최대 목표로 내걸었던 정책들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도를 분할해 가지고 3분의 2의 정부 기관을 옮기는 것 그리고 180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것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근에 있는 땅 값도 오르고, 저는 분명히 이전 안 되고 엄청난 대가만 치르게 된다고 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는 종종 어떤 사건에 대한 계산서를 나중에 발행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발행하게 될 때는 거기에 이자에 이자를 붙여서 그 대가를 요구하는 법입니다. 그 대가를 고스란히 후임자의 몫이거나 아니면 우리 국민, 우리 다음 세대의 몫입니다. 이 정부가 추진했던 수도 분할로 인한 전 국토의 투기장화, 공공기관 이전. 전시작전 통제권 같은 건 예를 들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두고두고 우리의 짐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협박과 이런 걸 각오하고 그런 일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아까도 오시장님께서 서울의 금융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정부가 서울을 동북아 금융 허브로 만들겠다고 해 놓고 금융 관련 정부 부서, 경제 관련 정부 부서를 옮기겠다고 그 당시에 나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정부는 앞뒤가 안 맞는 식인데 이런 상황에서 북경이나 동경 상해 등과 경쟁하려는 서울의 국제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돋움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수도 분할 정책에 관한, 그리고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해서 오시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언론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두 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대표) 오늘 이른 시간에 바쁘신데도 일정을 쪼개어 이 자리에 오셔서 소중한 말씀을 해 주신 오세훈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시장님의 힘차고 밝은 서울시 미래 구상을 잘 들었습니다. 특히 창의시정, 또 한강변 르네상스 플랜 등을 통한 관광객 1200만 목표, 치매 사업이라든지 영육아 보육 사업 등은 아주 공감이 가고 인상적입니다. 저는 좀 엉뚱한 비유를 통해서 한 가지를 드리고 질문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골프를 하다보면 앞서 사람이 드라이브를 아주 잘 치게 되면 그 다음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제대로 스윙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 오시장님께서 전임 이명박 시장님의 성과에 너무 신경써서 혹시 다소 무리한 정책 추진을 해 나가시는 게 없으신 지, 또 그러다 보니까 더러는 너무 보여주는 데에 집착하지 않으시는지 걱정하는 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명박 전 시장님의 경우 주로 청계천 사업이라든지 도심 교통망 개선 같은 하드웨어 부분에서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마는 오시장님께서도 골프로 치면 드라이브 보다는 어프로치나 퍼팅 같은 소프트웨어 부분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행정 관행들 하나하나를 원칙과 기본에 충실해서 개선하고 또 아까 누가 제안을 했지만 꺾직한 것 두 세 개 보다는 시정 운영 4개년 계획 속에 있는 내실 있는 작은 단위 사업들을 잘 추진해 가시는 것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의미 있는 인상을 남겼으면 하는 걸 생각해서 제안을 한 가지 드립니다.

질문으로써는 일부 또 나왔지만 참여정부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를 동북아 금융 허브로 만들겠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한국은 아무리

노력해도 금융 허브는 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금융보다는 금융 및 서비스 물류라든지 통신 교육 의류 IT 등이 있지만 금융 및 서비스 허브 정도로 우리가 범위를 넓힌다면 이 과제는 의미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 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금융과 서비스 허브가 되자고 한다면 그 중심은 서울에 있고, 또 서울이 금융 서비스 허브라고 한다면 그 지표중에 하나는 세계적인 금융과 서비스 기업의 헤드코타 또는 리즈놀리 헤드코타를 얼마나 많이 서울로 유치할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관광을 하는 외국인보다는 주거하는 외국인들이 서울에서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나왔지만 외국인을 위한 학교 병원 시설 확충, 환경 개선 등도 좀 더 우리가 아시아의 경쟁 도시보다 더 잘 해 나가야 되겠지만 외국인들이 느끼는 우리 국내 정부 채널의 부족 방송도 아리랑 방송이 있지만 영어 방송 확대 문제라든지 영어 구사 인력의 비중을 높인다든지 물론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업무에 한계가 있지만 이런 측면에서 생활 인프라의 개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생각을 하시는지, 또 한편으로는 서울도 우리 아시아에 경쟁되는 상해 싱가포르 홍콩 동경과 같이 경쟁을 하면서 국제 경쟁력을 가져야 하는데 혹시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소위 도시의 국제 경쟁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 핵심 요소는 무엇이고 앞으로 재임 기간 동안 서울의 국제 경쟁력을 어떤 측면에서 좀 더 올릴 구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의 국제 경쟁력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복잡한 얘기가 아닙니다. 외국인들 특히 서울을 찾은 외국인들 관광객과 바이어들에게 물어보면 무엇이 서울에서 가장 불편하느냐 물어보면 교통혼잡과 대기 질을 가장 많이 얘기합니다. 서울시민들은 잘 못 느끼는 것입니다. 느끼지만 피부로는 심각성을 못 느끼고 적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그게 굉장히 힘든 모양입니다. 서울에 와서 생활하기에 가장 힘든 게 너무 교통에 시간을 많이 뺏긴다. 숨을 못 쉬겠다. 오늘 같은 날은 참 좋은 날입니다. 비온 다음날은 괜찮은데 사나흘 지나고 1주일 지나면 북한산성이나 남한산성에 올라가서 보면 어항 뒤집어 놓은 것처럼 밟그레합니다. 그 안에서 그 공기를 먹

고사는 건데 아까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서울의 대기 질 프로젝트가 그래서 너무 절실합니다. 이걸 해 놓으면 별로 빛은 안 납니다. 시민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몇몇 관심 있는 분들이나 오피니언 리더들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실 만한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됩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공기질과 아울러서 교통이 문제입니다. 흔히들 교통이 문제가 되면 도로를 만드는 걸 생각하지만 교통해법은 도로에 있지 않다는 게 교통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이제부터는 도로를 늘리는 데 중점을 두지는 않습니다. 물론 군데군데 손을 봐야 할 곳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 수 있는가 라는 데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 하지 않고 꾸준히 투자가 될 것이고 버스 중앙 차로를 비롯해서 기존에 골격을 잡았던 내용대로 밀고 나갑니다. 기존의 서울 골격은 무엇이나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 문화입니다. 따라서 승용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계속 불편해집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계속 서울시의 교통에 대해서 불만스럽게 생각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이 옳은 방향입니다. 이제 뉴욕처럼 가는 것입니다. 차를 몰고 시내에 들어가는 게 너무나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주차비도 높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원활하게 교통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데 상당한 교통이, 저항이 예상되는 정책도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미리 밝히기는 좀 이르지만 그런 획기적인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울의 교통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심도 있는 고려가 진행 중에 있는 데 임기 중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고민하고 있고 그 외에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면 이제 그 분들, 아까도 말씀드린 거주하는 데에 불편이 없으려면 아플 때 병원에 가서 불편이 없어야 되고 아이들 교육이 안심할 수 있어야 되고 용산 국제 학교가 지난달에 개교가 됐는데 그런 용산에 새로 만들어진 최첨단 국제 학교 같은 시설을 갖춘 학교가 두 세 군데 만들어지면 외국인들이 굉장히 흡족해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구상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이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이나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고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에 국감 직후에 사이백이라고 하는 국제적인, 서울시로써는 아주 중요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서울을 위한 국제 경제 자문단입니다. 매출액 수조원대의 삼성 정도 이상의 규모를 가진 회사의 CEO 들이 열 몇 분 서울을 방문하셨습니다. 블룸버그의 피터그라우 회장이 의장을 맡고 있는데 서울의 발전을 위한, 서울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알토란같은 아이디어를 주고 가셨습니다. 그 날은 서울시장 하루 반 동안 모든 스케줄을 전폐하고 그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분들로부터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것이 정책으로 반영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만들어 나가는 데 핵심적인 요소가 될 터인데 그 세계적인 CEO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이야기가 저희 100일 창의 서울 본부에서 만든 4개년 계획이 매우 잘 짜여졌다 그렇게만 되면 서울의 경쟁력이 있다 이런 대체적인 공감대를 받았습니다. 아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잘 조화될 필요가 있다는 충고적 말씀이 있으셨는데 비교적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잘 조화된 플랜이 짜여졌다 라고 하는 평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엇그제는 서울 타워 미팅도 했습니다. 서울 지역에 거주하고 외국인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 CEO들 각국 외교관들이 모여서 서울에서 무엇이 불편한지 뭘 개선해 줬으면 좋은지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듣는 자리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내용들도 시정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나름대로 외국인들의 눈에 비추어진 서울이 무엇을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한 시스템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문제가 있는데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전임자를 의식한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 걱정된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명심하겠습니다. 너무 안 보여줘서 일부 언론에서는 사설인가 칼럼인가를 통해서 몇 번 맞았습니다. 오세훈이 어디에 갔느냐 안 보인다 전임시장에 비해서 너무 안 드러난다. 브랜드가 없다 이런 류의 칼럼들을 다 읽으신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사실 인터뷰나 언론의 노출을 극도로 자제해 왔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언론에서 섭섭하게 생각할 정도로 왜 안 드러나느냐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을 하기에 너무 바빠서 외부 행사를 거의 전폐하다시피 하고 4개월 동안 안에서 씨름을 했습니다.

하여튼 잘 조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외부 홍보에 치중하지 않으니까 안 보인다는 얘기를 하시고 이렇게 하면 저런 비판이 있고 저렇게 하면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실이다 라고 생각하고 업적 위주의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에 100일 창의 서울을 만들면서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성과 위주의 계획을 짜지 말고 10년 뒤 30년 뒤를 바라보는 계획을 짜자 라고 했습니다. 섭섭해 하는 분들이 있으셔도 좋으니까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계층이 있어도 좋으니까 30년 뒤를 바라보는 플랜을 짜자 라고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이전 문제나 이 문제는 저도 변호사님과 거의 생각을 같이 하는데 다만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뉴타운 사업얘기를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원래 컨셉은 기존에 재건축 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서울의 낙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해 왔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난개발이 됩니다. 도시가 업그레이드되려면 생활 편의 시설과 복지 시설, 도로나 공원과 같은 인프라가 늘어나야 하는데 개별단위로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기초 시설은 늘어나지 않으면서 새집만 늘어나는 현상 때문에 처음에 뉴타운을 구상하게 된 것입니다. 광역화된 재개발이고 광역화된 재건축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 나름대로 해야 될 일은 나름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사고 같은 것이 강북에 두어 개 정도 생기면 부족하나마 강남/북 교육 격차가 해소가 된다고 봐서 전임 시장님의 정책을 이어받아서 길음과 은평에 자사고가 두 군데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 제 취임이후에 강남/북 교육 격차 해소 및 인재 양성을 위한 특별 조례라는 걸 만들어서 1년에 약 500억 정도의 예산이 강남/북 교육 격차 해소에만 쓰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강북에 집중적으로 교육 부분에 투자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강남쪽에 너무 경도된 여러 가지 가치들 특히 교육과 관련된 걱정들이 많으시고 그것 때문에 집값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강북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산 문제는 생각보다는 진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 건교부 장관이 바뀌셔서 설정이 어떻게 되어 갈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나쁜 방향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워낙 용산공원 조성에 관한 중앙 정부와 서울시의 격해 차이가 극명하게 보도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론이 형성되기를 서울시 쪽이 맞다는 쪽이 7-80%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건교부가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요즘에는 거기 81만평 본체를 건드리지 않겠다고 본인들 스스로도 고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안에 담는 것에 관련한 조금 이견을 가지고 있는 데 결국 국회에서 걸러지는 과정에서 서울시 의견이 관철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몇몇 마이너한 권한에 관한 논의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잘 협의해서 30년 뒤쯤 서울의 용산 공원이 허파 노릇을 할 수 있도록 보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추진력 있게 밀어붙일 생각입니다. 아마 기대를 갖고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일섭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장) 질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온 이유가 저와 비슷할 것 같은 데 사실 궁금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마디로 이제는 안심하고 오늘 돌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하시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말씀 들어보니까 생각도 많이 하시고 포괄적으로 내실이 있어서 걱정을 안 하겠다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여쭙어 보고 싶은 건 보통 새로 후임자가 취임하면 10년 20년 30년 50년 앞을 보고 정책을 하게 되는데 모든 새로 취임하시는 분들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새롭게 선임된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전임자가 한 것은 가급적 말소하고 자기의 스타일을 심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장기 집권, 장기 독재가 안 되면 어떤 정책이 일관성이 안 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 생각해서 하시겠지만 지금부터 이번 기회에 전임자가 한 것 중 반드시 계속 되어야 될 사업 좋은 사업 이어받을 사업과 새로 시작하거나 고칠 것을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좋은 제도 좋은 사업을 계속 진행이 되고 그런 것에 대한 장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공무원의 업무풍토 의식에 대해서 관심을 두시는 건 100% 찬성합니다. 특히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인사 감사 제도를 신경 쓰는 것

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데 하나 공무원들한테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지방 공무원 자치단체 공무원하면 우선 시민들의 이미지가 부정과 상당히 연결이 많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쭙어 보고 싶습니다.

(노부호 서강대 교수) 국제 자문단 얘기가 아니라 프레임워크를 보니까 너무 완벽해서 정말 김일섭 회장님 말마따나 그 동안에 뭐하고 계시나 하는 궁금증이 보도가 되곤 했는데 안심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전임시장과 차별이 되는 점은 화학적 변화라고 할까 서울시의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균형적으로 내실을 위한 화학적 변화의 프레임워크가 정말 마음에 들고 시장님이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전임시장님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창의 아이디어 100일도 마찬가지이고 국제 자문단도 그렇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아이디어를 듣고 반영하려고 하시는 프로세스가 상당히 좋아보입니다. 그래서 4년 동안 계속하시면 정말 좋은 서울시가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경영 쪽에 들어와서 기업을 변화시킬 때 크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자율과 평가입니다. 그런데 업적 포인트에서 마일리지로 해서 책임을 지게 하는 문화는 진척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율적인 부분, 다시 말해서 창의적으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조직 구조가 많이 달라져야 하는데 조직계층이 달라져서 윗사람 간섭 없이 일을 잘 할 수 있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자율적인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고, 두 번째는 5대부분에 471개의 프로젝트라고 하셨는데 상당히 벅찬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역시 필요한 건 시간이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사실 사람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 서울이 되려면 문화 시민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큰 사업을 하려면 정말 아름다운 서울이 되려면 시 직원들의 수준이 높아야 일을 잘 추진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예산 문제는 충분한지, 또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데 시 직원들을 어떻게 육성시키고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느냐, 우리가 많은 프로젝트를 하지만 용두사미로 끝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산과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런 의미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제약 조건 때문에 프라이어리티라는 걸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71개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어떤 프라이어리티를 마음에 두고 계시는지, 저는 세계 어느 나라를 돌아다녀도 한강만한 강이 없는데 제일 관리가 허술한 게 한강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마음에 들었는데 그런 관점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영 중부대 총장) 오늘 발표된다고 예고된 부동산 대책 중에 물론 서울도 들어갈 줄 압니다. 신도시 주변에 용적률을 높이고 녹지 비율을 낮추고 또 서울시내에 있는 주상복합의 비율을 아파트비율을 대폭 높이겠다 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서울시에서 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하면서 상당 부분의 용적률을 낮추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 대책이라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단기적인 대책에 밀려서 40년 5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해야 될 서울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 같아서 당황스럽습니다. 아까 재건축 재개발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장기적인 프로그램에 진행이 되어야 할텐데 상당히 이점이 우려스럽습니다.

두 번째는 교통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서울 주변에 신도시가 상당히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한 5년쯤 지나고 10년쯤 지나고 나서 서울을 어떻게 오고가야 할 지 걱정이 태산같습니다. 외국의 런던이나 동경에 가면 철도가 아주 잘 되어 있는데 우리는 철도가 아시다시피 수도권 전철은 70킬로 밖에 안 됩니다. 또 서울시도 200여 킬로미터 지하철을 깔아놓고 이제 한숨 놓고 9호선으로 끝내려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서울시내도 그렇지만 서울과 신도시를 연결시키는 철도가 저는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서울역도 수서에 서울역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서 멍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삼성동에 있는 한전부지가 사라지고 거기에 서울 남부역이라도 만들어서 서울 남쪽지역으로 날아가는 신도시와 연결시키는 철도를 쪽쪽 뽑아줬으면 좋겠다 라는 사실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국정 감사 받는 것 같습니다. 국정 감사의 특징이 의원들이 질문할 때 시간제한이 있습니다. 막 얘기하고 답변하려고 하면 간단하게 답변하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시가 주변에 많이 생기는 건 서울 교통에서는 치명적입니다. 특히 남쪽에 생기면 강남을 통해서 강북으로 들어오는 데 서울의 교통이 혼잡한 이유 중에 하나가 중요한 원인이 통과 차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출퇴근 차량들이 대부분 나홀로 차량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책 방향은 정확히 광역교통망 체계를 완비하는 데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수도권 전철 내지 경전철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고 이른바 BRT라고 해서 고속으로 서울을 진입할 수 있는 버스 차선을 만들어서 빠른 시간 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외국 같으면 그렇게 해결을 하는데 실무적으로 난점이 많습니다. 도로 체계도 거기에 맞게 구성이 된 것도 아니고 해서, 특히나 지금 수도권 광역 교통 10개년 계획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자꾸 신도시가 들어서게 되면 이 체계가 자꾸 흔들려서 체계를 보완해야 되고 점점 더 늦어지는,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주택문제가 여러 가지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발표될 내용 이미 언론에 보도된 용적률 높이고 녹지 비율 낮추고 주상복합에서 아파트 비율 높이고 사실 도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다 부담스러운 방향으로의 변환입니다. 사실 서울시가 그동안에 가져오던 기본적인 틀에도 많이 맞지 않고, 언론의 속성이 여기에서 좀 더 구체적인 코멘트를 하게 되면 마치 서울시가 반대하는 것처럼 비취질 것 같아서 극도로 표현을 아낄 수밖에 없는데 여하튼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서울에는 부담이 되는 방향임에는 틀림이 없다. 여러 가지 큰 틀에서의 기존의 참여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잘 맞지 않는 면도 있고 여러 가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워낙 민감한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일이 코멘트를 못할 처지라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 한강 르네상스가 중요하다고 아셨는데 한강 르네상스가 이 시점에 꼭 해야 될 일이거니와 저희들이 신경 써야 할 게 한강 르네상스를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 쓴 게 한강이 가진 특색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 내 놓아도 이만큼 수량이 풍부하고 강폭이 넓고 도심 한 가운데를 흐르면서 수려한 모양을 가진 강이 없습니

다. 그런데 그 동안에 왜 이렇게 밖에 이용이 안 됐느냐, 양쪽에 88도로와 강변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를 개설하면서 작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완전히 작망 노릇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토끼굴 같은 출입구 밖에, 물이 1년에 두세 번 휩쓸고 지나가니까 자칫 잘못하면 물바다가 될 수 있으니까 토끼굴을 만들어서 쉽게 막을 수 있게 하다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승용차 하나가 겨우 교행하든가 일방 통행할 수 있는 정도의 이런 것들이 다 개선 대상입니다. 그래서 접근성을 높이고 큰 틀에서 위에 보행 데크 같은 형태의 출입로가 생겨서 88도로나 강변도로가 그 부분에 관한한 터널화 될 수 있는 형태로 접근로를 개선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33꼭지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잘 어우러졌다는 언론의 평가를 받은 바가 있는데 한강에서 상당한 이러한 변화가 강조해 주신대로 일어날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우선순위를 두고 여러 가지 플랜을 짜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하이 서울 페스티벌이라는 게 전임시장님 시절에 만들어져서 상당한 브랜드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지명도가 생겼는데 사실 그 동안의 축제는 가수 불러서 노래 듣고 하는 그런 식의 페스티벌로 상당히 소모적으로 흘렀었습니다. 내년에는 이 하이 서울 페스티벌의 컨셉이 완전히 바뀝니다. 앞으로 모든 하이 서울 페스티벌은 컨셉을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내년에는 한강입니다. 그래서 아까 한강변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벌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서울에 카메라가 오게 만들 수만 있다면 제가 발가벗고 물구나무라도 서겠다 라는 심정으로 플랜을 짜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CNN뉴스를 통해서 서울이 한강이 전세계에 중계방송 될 수 있도록 그런 아이디어들이 정리가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471개 단위 사업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예산은 어떠냐, 또 직원의 수준 향상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느냐 하셨는데 예산은 제가 공약으로 만든 게 아니라 서울시에 예산과 총무 파트에 있는 직원들이 참여한 상태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산은 충분히 4년 동안, 내년 서울시의 예산이 16조 9700억입니다. 지금 시의회에서 다소 수정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큰 범주를 벗어나지 않을 텐데 그렇게 해서 4개년 예산 물론 17조가 다 4년 예산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1년에 쓸 수 있는

건 8조 정도 되고 그 중 신규 사업에 쓸 수 있는 건 1조가 안됩니다.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짜여진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타임스케줄이 다 있습니다. 그것들이 책으로 보면 상당한 두께인데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타임스케줄까지 다 마련이 된 스케줄이니까 실천에 관한 실행에 관한 걱정은 과히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직원 수준 향상에 대해서는 잠깐 비추었지만 앞으로는 기존의 공무원 교육 시스템이 아닙니다. 적어도 서울시의 교육 시스템이 기업 영역에서 보면 삼성 인력 개발원이나 GE의 인재양성 프로그램에 버금가는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틀을 짜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완전히 바뀌는데 기본적인 골격은 6급 이하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러닝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풍부하고 알찬 콘텐츠를 늘 제공해 줍니다. 그걸 가지고 독학을 하도록 만들고 일정 테스트를 거쳐서 승진에 반영이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갑니다. 따라오는 사람만 끌고 갈 것입니다. 단 팀장에서 과장 과장에서 실/국장으로 승진할 때는 한번 정도씩의 지역 코스를 거쳐서 자기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서울시 전체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 그리고 공무원으로써의 기본적인 마인드, 리더십에 이르기까지 기업에서 하는 리더십 교육 이상 가는 알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지역 코스를 통과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승진이 힘들어지도록 큰 틀에서의 골격을 주고 짜라고 얘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각계 각층의 교육 전문가들이 모여서 1주일에 한번씩 하드한 스케줄을 거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기본 골격이 나올 것이고 내년 인사 이후부터는 적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적어도 서울시 출신 공무원은 흔히들 그렇게 비교를 하는 데 비슷한 자질의 사람들이 사영역과 공영역으로 들어왔을 때 10년 20년 뒤에 자질이 달라져 있다 과연 서울시 공무원 출신으로써 20년 뒤에 사기업의 경영자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이런 반성하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20년 뒤에 적어도 실/국장을 서울시에서 거치고 나면 각 기업체에서 앞다투어 CEO로 모셔 갈 수 있을 정도의 자질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해서 바꾸어 보라고 목표를 쫓습니다. 아마 이런 구상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서 교육시스템이 바뀌게 되면 염려하시는 서울시 직원들의 전반적인 소양, 업무 지식, 전문성들이 상당히 형성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창의를 자극하는 조직구조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아이디어를 내는데 어느 정권 같으면 처음에 아마 할당하는 분위기가 됐을 것입니다. 아이디어 2만개 나왔다고 자랑삼아 말씀드렸는데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강요하지 마라 할당하지 마라 물론 숨어서 했겠지요. 몰래몰래 했겠지만 그래서 2만개 정도 나왔지만 하여튼 자율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통 형통의 장애라고 해서 직원들과 가급적이면 한달에 한번씩 모여서 직접 호프 타임이나 극장 구경을 같이 가는데 며칠전에 연극을 하나 봤는데 그런 걸 통해서 바닥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만나서 얘기하면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자율적인 분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감사 시스템에 대해서 부정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느냐 하셨는데 참 문제인데 다행인 것은 서울시는 복마전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게 가물가물할 것입니다. 서울시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외국에서 와서 벤치마킹 해 갈 정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점부터 되기 시작했느냐 하면 고건 시장님 때 전자정부가 실현되기 시작하면서 모든 시스템이 오픈이 됩니다. 결재 과정이 오픈이 되고 결재 안하고 갖고 있으면서 뭔가 바라는 그런 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공개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너무 많이 공개가 되어서 오히려 부담스러울 정도로 공개적으로 합니다. 입찰도 전부 공개적으로 오픈이 됩니다. 미리 심사 평가 다 해서 원가 절감이 가능한 방향으로 목표 설정을 해 놓고 오픈하기 때문에 부정의 소지가 조달 단계에서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들어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생각했던 것 보다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들어와서 새로 뽑은 정보화 기획 단장에게 임무를 주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괜찮았지만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아이티를 활용한, 지금 기업에서도 하고 있지만 아이티를 활용한 투명성 재고를 통한 부정 방지책을 한번 더 만들어 보자 해서 6개월 텀을 주었습니다. 이 플랜이 완성이 되면 업그레이드된 형태의 전자 정부가 탄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임자 지우기를 의식적으로 한다 참 오해가 많습니다. 노들섬 오페라 하우스 문제라든가 몇 가지 사업에서 다른 플랜을 밝혔더니 전임자 지우기가 아니냐 그런 식의 얘기가 있었는데 큰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계천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면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런 표현을 했는데 이제 겨우 토목 공사 끝났다 여기에 문화와 IT의 옷을 입힌다. 저는 이게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구상하는 IT 문화와 청계천의 만남이라는 주제의 사업이 잘만 실행이 되면 전임시장과 후임시장의 업무 분담의 전형적인 바람직한 사례로 자리잡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전임자 지우기 같은 생각이 있으면 그렇게 일을 안 했을 것입니다. 청계천 지금 상태로도 좋은데 거기에 뭐 한다고 더 돈을 들이고 콘텐츠를 집어넣겠습니까? 제가 하는 일은 거의 눈에 보이지 않은 콘텐츠 부가 사업입니다. 프로그램과 콘텐츠. 오히려 전임시장님이 해 놓으신 것에 더 빛나게 할 수 있는 작업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있고 제가 471개의 단위사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중 제가 공약을 통해서 새로 컨셉을 만들어서 집어넣은 것들은 그 중에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471개 사업 중 3분의 2 정도가 저희들이 통계를 낸 게 아니고 어느 외국의 비판하시는 분이 통계를 내서 제가 알았는데 3분의 2가 서울시정 10개년 계획, 장기 발전 계획에 다 들어가 있었던, 기존에 시정개발 연구원이라고 하는 서울시의 아주 역량 있는 연구조직이 있습니다. 연구원들도 아주 양질인데 여기에서 중장기 계획을 세웠던 것들을 하나하나 뽑아다가 실현 가능한 것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과 인력을 감안해서 실천 계획을 세운 게 471개의 사업입니다. 이게 거의 전임시장, 전 전임 시장 때부터 꾸준히 구상이 되어오던 것들 중에 실현 가능한 것들을 뽑아낸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연속성에 관한 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황영기 우리 은행장) 시간이 없으면서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 시민입니다. 서울 시민자격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 중에 하나가 산과 절입니다. 세계 어느 도시를 가 봐도 산이 가까이 있는 도시가 없습니다. 청계천과 한강 인사동 명동 프로젝트 중심으로 말씀하셨는데 외국 사람들

이 와서 한강이 임프레시브하다는 얘기보다는 산이 임프레시브하다는 얘기를 더 많이 듣습니다. 관광 문화 차원에서 산과 절을 활용하실 계획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라는 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복지 서울에서 영육아 보호 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영육아 보호관련법도 있는데 영육아 보호 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현실적으로 만들기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영육아보호설치계획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오석 무역 연구소 소장) 앞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전임자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공직자는 후임자가 가장 잘 평가한다고 하는데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 전임자는 뭘 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임자에 대한 평가를 듣고 싶고 두 번째는 관광을 강조하시는 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금년에 저희가 무역을 해서 150억불을 보는데 관광으로 150억불이 나갑니다. 그래서 관광을 별도로 서울시 내에 별도의 조직으로 다루어 보실 생각이 없으신지, 관광이 문화부에서 있는 나라는 우리 뿐 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소프트웨어인데 그런 생각은 어떤지, 세 번째는 4년 뒤에 시장님이 장래 어떤 희망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국토의 균형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때는 시장에 재선하실지, 더 높은 곳을 향해 가실지 모르겠지만 국토의 균형이라는 관점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건의 드릴 건 앞서 서울시의 벤치마킹으로 북경 동경을 드셨는데 저는 벤치메이킹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도시를 볼게 아니고 서울 나름대로 벤치메이킹을 해야지 벤치마킹을 해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벤치메이킹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취임 후에 직원 조례를 두 번 했습니다. 직원 조례를 하면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데 한 4천명 정도 모입니다. 그때마다 제가 한 2, 30분 강의를 하고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외부 강사를 모셔서 강의를 듣도록 합니다. 처음에 들어와서 창의 시정 얘기를 하니까 직원들이 전부 다 어리둥절했었습니다. 뭘 소릴 하나, 두어 번의 직원 조례를 거치고 간부들을 데리고 몇 번 워크숍을 하고 그 다음에 교육 시스템에 창의 교육을 집어넣고 몇 번의 행사를 거치면서 아하 서울시장이 얘기하는 창의 시정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이른바 삼성경제 연구소의 강신장 상무가 와서 했던 첫 번째 강의 두바이 얘기, 창의성을 한 첫 번째 강의 두 번째 강의는 중앙일보의 정진원 논설의원 모셔서 역시 상상력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서울시 직원들이 온리 원 월드 퍼스트를 지향합니다. 우리의 라이벌이 경기도가 아니라 부산시가 아니라 강원도가 아니라 상해 북경 금융에는 홍콩 싱가포르, 문화 정책에는 뉴욕, 파리 전세계 인류 도시라는 생각을 이제는 합니다. 무슨 사업아이템을 내도 온리 퍼스트 온리 원이나 온리 퍼스트냐 이걸 늘 묻습니다. 뭘 하나를 해도 이렇게 하자 아마 지금 말씀하신 벤치 메이킹과 일맥상통한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만들어 낸 게 한강프로젝트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진행이 되는지 나중에 한번 지켜보십시오.

관광 조직이 따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관광 마케팅 공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문화국 내에 관광과로 존재했습니다. 문광부 장관과 관광국장을 만나서 얘기하는데 상전벽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동안에 전국 관광 담당자 공무원 회의를 하면 서울시는 늘 불출석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관광에 대해서 심포지움을 열면서 들은 얘기인데 관광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서울시가 관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정말 큰 변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하튼 마케팅 공사를 만들고 있고 마케팅 공사가 만들어 지는 데 1년에서 1년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SBA라고 산하 단체 중 서울산업 통상 진흥원이라고 있는데 상당히 일을 열심히 잘하는 조직인데 이 조직 내에 마케팅 본부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급한대로 1년 정도 만들어 지는 동안에 활동을 하고 거기에 일 잘하는 사람을 많이 모아놓았습니다. 그 곳이 자연스럽게 마케팅 공사로 이어질 것입니다.

전임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 방향설정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정권이 행정 기관이나 중앙 부처를 옮김으로 인해서 균형발전을 꾀한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참으로 실효적이지 못한 방향을 설

정했는데 지금 문화 프로젝트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것이 경제성이 있느냐, 혹은 실현 가능하나에 대한 평가를 차치하고라도 그것이 가진 비전, 다시 말해서 경제를 통해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하겠다고 하는 기본 컨셉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토균형발전과 전임시장에 대한 건 대신하고 영유아 보육 시설이 까다롭다고 하셨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까다로운 게 아니고 직장 보육 시설 만드는 규정이 좀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국공립보육시설 민간인 보육 시설 가정 보육 시설은 까다롭다고 보기 힘들고 직장 보육 시설의 경우에는 기존에 기준을 좀 까다롭게 했는데 사실 효과 면에서 보면 직장 보육 시설은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굳이 제 임기 중에는 직장 보육 시설을 무리하게 많이 늘릴 플랜은 없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워낙 인기가 좋기 때문에 서비스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국공립 보육시설을 많이 늘리는 것이 제 정책 목표가 되고 민간 보육 시설의 경우에는 국공립에 비해서 질적으로 낮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질을 끌어올리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어제 마침 서울 시내에 국공립 보육 시설의 교사 100여명을 모셔다가 상도 주고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제가 약속했지만 제 임기 중에 가시적인 변화, 특히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질적인 업그레이드에 신경을 많이 쓸 생각입니다. 국공립보육시설의 경우에는 현재 강북에 보육시설이 없는 동이 있습니다. 그 동을 위주로 해서 제 임기 중에 하나씩은 다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 복지 예산이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치매와 영유아 보육시설을 비롯해서 각종 복지 정책이 여러 가지 다듬어져 가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산과 절을 활용한 방안인데 사실 다 했으면 좋겠지만 제 임기 중에는 중점이 관광객들이 주로 방문하는 시내인 한강과 청계천, 인사동, 명동, 남산까지 하겠습니다. 남산에서 엄청난 많은 변화가 기획이 되고 있는데 많이 바뀔 것입니다. 그

동안에 남산을 있는 그대로 활용했다면 지금부터는 보행을 하면서 산을 오르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그 곳에서 생태적인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접근로가 개선이 되고 그 곳에서 역사와 어우러져서 스토리 텔링이 가능한, 관광이 되려면 스토리가 들어가야 하는데 스토리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보신각 종이 매일 타종이 됩니다. 지금은 1년에 중요한 서너 날만 타종이 되지만 앞으로는 매일 12시에 타종이 되고 시민들도 신청을 하면 타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걸 바꿨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남산의 봉수대에서 매일 12시에 봉화가 올라갑니다. 밤에는 눈에 떨 수 있는데 낮에는 연기가 올라가면서 그런 것들을 만들고 관광객들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감탄을 합니다. 스토리를 집어넣는 작업부터 시작해서 남산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는데 거기까지만 하고 다음 임기 정도에 누가 오면 북한산이나 서울 근교의 산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왜 강만 가지고 하느냐 우리 산이 얼마나 좋은데 그러느냐 라고 시의회에서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다합니까? 4년 동안에, 다음 임기에도 할 일이 있어야지요 라고 말았는데 산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남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사의 경우에는 템플 스테이를 비롯해서 관광객들이 즐길만한 상품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절과 더불어서 북촌 한옥마을에 스테이 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는 어정쩡합니다. 그걸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작업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많이 쓸 수 있는지 타깃 마케팅을 도입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 및 교열

남충현 연구원 (netch30@hri.co.kr) ☎ 02-3669-4142

HRI 經濟 指標

➡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 | | 주요 경제 지표 추이와 전망 | | | | | | |
|----------------------------|-----------------|-----------------|-------|--------|--------|---------|---------|---------|
| |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P) | 2006(E) | 2007(E) |
| 국 민 계 정 | 경제성장률 (%) | 3.8 | 7.0 | 3.1 | 4.7 | 4.0 | 4.8 | 4.2 |
| | 최종소비지출 (%) | 4.9 | 7.6 | -0.3 | 0.4 | 3.4 | 4.2 | 3.7 |
| | 민간소비 (%) | 4.9 | 7.9 | -1.2 | -0.3 | 3.2 | 4.1 | 3.5 |
| | 총고정자본형성 (%) | -0.2 | 6.6 | 4.0 | 2.1 | 2.3 | 2.9 | 2.5 |
| | 건설투자 (%) | 6.0 | 5.3 | 7.9 | 1.1 | 0.4 | 0.5 | 1.5 |
| | 설비투자 (%) | -9.0 | 7.5 | -1.2 | 3.8 | 5.1 | 7.5 | 4.5 |
| 대 외 통 계 래 준 | 경상수지 (억 \$) | 80 | 54 | 119 | 282 | 166 | 30 | -30 |
| | 무역수지 (억 \$) | 93 | 103 | 150 | 294 | 232 | 170 | 100 |
| | 수출 (억 \$) | 1,504 | 1,625 | 1,938 | 2,538 | 2,844 | 3,250 | 3,550 |
| | 증가율 (%) | (-12.7) | (8.0) | (19.3) | (31.0) | (12.0) | (14.3) | (9.2) |
| | 수입 (억 \$) | 1,411 | 1,521 | 1,788 | 2,245 | 2,612 | 3,080 | 3,450 |
| | 증가율 (%) | (-12.1) | (7.8) | (17.6) | (25.5) | (16.4) | (17.9) | (12.0) |
| 기 타 | 소비자물가 (평균, %) | 4.1 | 2.7 | 3.6 | 3.6 | 2.7 | 2.5 | 2.8 |
| | 실업률 (%) | 3.8 | 3.1 | 3.4 | 3.7 | 3.7 | 3.5 | 3.7 |
| 금 융 | 원/\$ 환율 (평균, 원) | 1,291 | 1,253 | 1,192 | 1,145 | 1,024 | 955 | 925 |
| | 국고채금리 (평균, %) | 5.7 | 5.8 | 4.6 | 4.1 | 4.3 | 4.6 | 4.4 |